



대중 피해 현장 찾은 허태웅 농진청장 3일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제9호 태풍 '미아삭'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감에 따라 경북 안동시 남후면 일대를 찾아 벼 쓰러짐, 과수 떨어짐(낙과) 등의 피해가 발생한 농가를 위로하고,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영농기술지원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허 청장은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해 병해충 예방·방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이번 주말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추가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사료용 벼 수확 끝난 뒤 '트리티케일' 파종해야

(밀과 호밀을 교잡한 합성작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3일 여름철에 재배한 사료용 벼를 적기 수확하고 이어 재배할 수 있는 겨울작물로 트리티케일(밀과 호밀을 교잡한 합성작물)을 추천했다. 트리티케일은 기능성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이모작을 통해 연중 질 좋은 풀사료를 생산하기에 알맞은 작물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쌀 생산 조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의 일환으로 재배하는 사료용 벼는 이삭이 낱 후 30일 무렵 수확할 때 사료가치가 가장 높고, 질 좋은 담근 먹이(사일리지)를 만들 수 있다.

농진청, 기능성 성분 풍부 이모작 통해 연중 질 좋은 풀사료 생산하기에 적합

사료용 벼 주요 품종인 '복양'과 '영우'는 이삭이 낱 후 30일 무렵에 가스화양분총합량(TDN)이 70% 이상 오르고, 수분함량도 65% 전후로 유지된다. 사료용 벼의 수확이 9월 중순에 끝나고, 10월 중순에 트리티케일을 파종하면 헤타르 당 12톤의 질 좋은 풀사료를 얻을 수 있다. 트리티케일은 가축의 지구력을 향상

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진 옥타코사놀 함량이 높고, 기능성 성분으로 밝혀진 플라보노이드, 테르펜, 알칼로이드 계열의 39종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트리티케일 종자인 '조성'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063-919-1615)에서 구입할 수 있다. 트리티케일에 관련된 내용은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과(031-695-4053)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김기영 중부작물과장은 "여름철 사료작물인 사료용 벼와 겨울철 사료작물인 트리티케일을 연중 재배하면 쌀 수급조절과 동시에 국내 양질 풀사료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호남지방통계청, 100대 지표로 본 전북 변화상 발간·공표

호남지방통계청은 통계의 날(9월 1일) 및 통계청 개청 30주년·호남지방통계청 광역화 11주년 기념 특별기획으로, 호남권의 지역별 변화 모습을 담은 3종의 보고서 중 하나인 '100대 통계지표로 본 전라북도 변화상'을 3일 발간·공표했다. '100대 통계지표로 본 전북도 변화상'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통계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스토리와 시각화 자료를 적극 활용한 이용자 친화적인 형태로 보고했다. 먼저, 주요 캐릭터를 통해 재미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쓴 스토리텔링 기획자료 '1986년생 '나전복'씨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통해 지역의 변화된 모습을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지표의 최근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한 눈에 보는 전북도 100대 통계지표'와 지역의 주요지표 변화상을 시각화한 인포그래픽 및 특장을 분석·정리한 요약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끝으로, 세부 내용을 담은 본문은 인구·가구, 고용, 물가·가계, 보건·복지, 삶의 질, 지역경제 등 총 11개 부문으로 구성했으며, 지표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지역대학 및 연구원 등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최종 100대 통계지표를 선정했다. 이호성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지방화·분권화 시대를 맞이해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역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만드는 원천이 바로 통계"라고 강조하면서, "본 특별기획 보고서가 지자체의 지역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 지역민에게는 통계가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광역 정전사고 예방 '머리 맞대다'

전기안전공사, 민간발전협회와 기술협력 비대면 워크숍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원)가 발전설비 안전 확보와 광역정전 사고 예방을 위해 사단법인 민간발전협회(회장 김용식)와 기술협력의 장을 열었다. 공사는 3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민간발전협회 유연백 부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원과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0 KESCO-IPPA 기술협력 비대면 온택트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개최해온 KESCO-IPPA 기술협력 워크숍은 공사와 민간발전사 간에 신기술 개발 경험과 발전설비 개선 사례를 공유해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두산중공업 장세영 부장의 'SI 활용 솔루션의 발전플랜트 적용사례'를 포함해 모두 6건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으며 광역정전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설비 개선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펼쳐졌다. 한편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사상 처음 비대면 원격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3시간 가량 열린 이날 회의에는 공사와 협회 회원 80여명이 설비안전을 위한 협력의 뜻을 모았다. 행사를 주관한 김관중 기술이사는 "지난 3월 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이 잘 정착되어 민간발전사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민간발전사와의 협력을 강화해 광역정전 사고 예방과 공해방지 설비 개선을 위해 더욱 힘써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동반성장 종합추진계획 확대 수립

새만금개발공사, 상생펀드 조성·성과공유제 등 반영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이하 '공사')는 4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동반성장 종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확대 수립한다고 3일 밝혔다. 공사는 기존 금융지원에 더해 9월 중 하나은행과 상생협력기업대출에 필요한 추가 협약을 통해 20억원의 상생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역·중소기업과의 미래혁신성장을 위한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동반성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새내 실무자 협의체 구성과 직원 인식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공사는 성과공유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등 새로운 정부정책에 기반한 자체 추진과제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공사는 기존 금융지원에 더해 9월 중 하나은행과 상생협력기업대출에 필요한 추가 협약을 통해 20억원의 상생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역·중소기업과의 미래혁신성장을 위한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동반성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새내 실무자 협의체 구성과 직원 인식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연결될 세상,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창출

LX, 주소기반 컨퍼런스 진행
행안부 등과 업무협약 체결
오늘 주소기반 신사업 모델 개발·고도화 추진상황 공유



디지털뉴딜을 선도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직무대행 최규성)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컨퍼런스를 진행한다. LX는 3일과 4일 이틀간 한국과학기술원 학술문화회관에서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2회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결될 세상,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창출'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주최 측 필수인원과 온라인 방송을 위한 관계자만 현장에 참여한 채 모든 프로그램을 무관중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기존 참석예정이었던 관련 기업과 지자체, 공공기관과 일반국민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유튜브'와 '줌'을 활용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시청하게 된다. 첫날인 3일에는 행안부와 국토부, LX와 LH, KAST와 K-Wate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7개 기관이 모여 '스마트시티 주소기반 혁신성장 산업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주소체계 고도화와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모델 구축을 주목적으

로 하고 있다. 주소체계 고도화는 최근 고밀도입체도시에 걸맞은 3차원 입체화와 육교 승강기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도 주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또한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은 주소와 안내판을 이용해 드론이나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배송체계를 구축하거나, 실내 내비게이션과 사물주소를 이용한 사물인터넷을 구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업무협약 이후에는 연세대 김갑성 교수의 '주소로 연결될 세상'이란 특강과 함께 '스마트시티의 미래'란 주제의 토론이 이어졌다. 둘째 날인 4일은 '주소기반 신사업 모델개발과 고도화'에 대한 추진상황 공유와 함께 공개토론이 이어지며, 5

편의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아이디어 발표도 함께 진행된다. 최규성 사장직무대행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컨퍼런스의 모든 프로그램에 비대면방식을 적용했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개발 중인 스마트시티에서의 주소정보 체험과 함께 주소정보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X는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전주시 디지털트윈 실험사업을 통해 소방안전 플랫폼과 스마트 관광, 주차장 관리 서비스 등은 물론 입체주소 도입과 실내 내비게이션 구현에 관한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베스트셀링 SUV 기대감 'UP'

현대차, 신형 투싼 티저 이미지 최초 공개

현대자동차가 신형 투싼의 티저 이미지를 3일 최초 공개했다. 아울러 신형 투싼의 중간주행등(DRL)을 모티브로 한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현대차의 차세대 베스트셀링 SUV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투싼은 2004년 첫 출시 후 전 세계 누적 약 700만대 이상 팔린 현대차의 베스트셀링 SUV 모델이다. 이날 현대차 전주공장에 따르면,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인 신형 투싼은 2015년 3세대 출시 이후 5년 만에 혁신적으로 진화한 4세대 모델로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 테마를 적용해 강렬한 인상을 주는 역동적인 외장 디자인과 ▲혁신적으로 개선된 전방 개방감과 미래지향적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실내 디자인을 갖췄다. 현대차는 한국시간 15일 오전 9시 30분에 현대차 공식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을 통해 세계 최초로 신형 투싼을 공



개하는 월드 프리미어 이벤트를 실시한다. 현대차디자인센터장 이상엽 전무는 "현대차는 감성이 더해진 스포티한 혁신적 기술을 구현한 디자인 정체성 '센슈어스 스포티니스(Sensuous Sportiness)'를 통해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신형 투싼은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완결하는 동시에 현대차의 도전적이고 대담한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SUV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주=이종복 기자

새만금개발청,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과 간담회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지난 1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과 간담회를 열고 새만금에 미래 기술과 신산업을 도입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에 관한 기획, 관리, 평가와 기술사업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연구개발(R&D) 전문기관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을 새로운 산업과 신기술을 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같은 전문기관(싱크탱크)의 지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한 만큼 지혜와 아이디어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영국,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 등의 도시개발 동향과 사례를 소개하며 새만금이 정부와 기업이 협업체를 세계적인 선도기술의 개발과 실증을 거쳐 신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로 했다. 손봉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은 "넓은 용지 확보가 가능하고 다양한 투자혜택이 제공되는 새만금의 강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신기술 개발의 시험대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라며 "관련 연구기관과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입주로 새만금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충모 청장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협력해 이루어 낼 성과에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 신규 사업 기획, 도시 교통 분야의 신기술 실증 사업 추진, 각종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개발청, 집코노미 언택트 박람회 참가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4일부터 '2020 집코노미 언택트 박람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관광레저(주), (주)새만금에이알이알리조트 등 주요 사업시행자와 함께 참여해 국민과 새만금 투자 관심기업들이 인터넷으로 손쉽게 새만금 사업에 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만금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누구나 집코노미 누리집(www.jponomy.com)에 접속해 '새만금 전시관'을 선택하면 공항, 항만 등의 기반 시설 현황과 계획, 우수한 투자여건, 다양한 투자혜택 등 전반적인 새만금 사업여건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 1%의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0년간 임대하는 장기임대용지,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 등 최고의 투자여건을 갖춘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고군산군도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추진되는 신시가지구 관광개발계획, 브이알·에이알(VR·AR) 테마파크 조성계획 등 핵심 개발사업 등도 온라인 홍보부스, 사진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자궁 경부암 유전자 돌연변이 연구 국제학술지 게재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이선영(방사선종양학과)·조동후(산부인과) 교수팀의 자궁경부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연구한 논문이 종양 분야 권위자인 SCIE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고 3일 밝혔다. 논문은 '혈액에서 순환하는 종양 DNA로부터 자궁 경부암에 대한 효율적인 돌연변이 스크리닝'이라는 제목으로, 종양 분야 국제학술지 'BMC cancer' on-line 8월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재발을 통해 기존의 방법보다 정확하고 저렴하게 자궁경부암 환자의 예후를 평가할 수 있고,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김윤상 기자